

희귀 LP 음반·카세트 테이프 다 모였네

3~4일 광주음악산업진흥센터서 '제1회 광주레코드 페어'



음반점·유통·제작사·아티스트...
38개 부스 22개 업체·단체 참여
'광주 출전기' 만든 범능스님
LP 특별기념음반 제작
8개팀 다채로운 음악 공연도



김흥국의 '레게의 신'



김나무 '사랑은 높은 곳에서 흐르지'

LP에 대한 추억 하나쯤 누구나 가지고 있다. 늘어질 때까지 들었던 카세트 테이프는 또 어떤가. 최근에는 '아날로그' 매력에 빠져 희귀 LP 음반을 구입하는 이들도 많아졌다. 얼마전 취재 한 음반 가게 '명음사'에도 가요, 클래식 등 LP 음반을 구입하는 이들이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었다. 또 몇년 전부터 서울에서 열리는 레코드 페어는 많은 이들의 추억까지도 소환하며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광주에서도 다양한 음반을 만날 수 있는 축제가 열린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제1회 광주레코드 페어'가 오는 3~4일(오전11시~오후 7시) 광주음악산업진흥센터 (옛 KBS 광주방송총국)에서 열린다. 같은 기간 개최되는 '사직사운드파크페스티벌'과 함께 만나는 행사다.

한국 최초의 음반 축제인 '서울레코드페어' 기획자 등이 함께 한 이번 레코드페어에서는 국내 음반점, 유통사, 제작사, 음향기기 전문 브랜드, 아티스트가 함께 참여한다. 참가 업체와 단체는 22개로 모두 38개 부스가 운영되며 힙합, 클래식, 재즈, 팝, 가요 등 취향에 맞는 다양한 앨범을 구매할 수 있다. 또 다채로운 장르의 음악 공연도 펼쳐지며 레코드 페어에서만 만날 수 있는 한정판 레코드와 카세트도 선보인다. 참가 업체는 1960~80년대 음반 재발매



정세현 음반

전문 레이블 '비트볼 뮤직', 20년 역사의 음반회사 '굿 인터내셔널', 1960~70년대 클래식록과 재즈 음반을 구비한 '방레코드', 현대사의 명반 '고무신' 재발매 LP 등을 판매할 '세일 뮤직', 유니버설 뮤직 산하 재즈 레이블 등을 내놓을 '지니 뮤직', 클래식·재즈·국악 전문 '오디오 가이', 종교·합창 싱글을 판매하는 '엑스트라' 등이다. 독립 레이블도 눈에 띈다. '갤럭시 익스프레스' 등을 제작한 '주식회사 러브라' '미러볼 뮤직' '김밥 레코드' 등이 참여한다. 그밖에 '지방자치 아이돌' AV, 광주독립음악발전연대 등 지역 인디 레이블과 디지털 LP 단테이블 등 음향기기 전문 브랜드 '사운드룩'도 참가한다. 다채로운 공연도 열린다. 그란디, 어니, 재즈이노베이션, Goonight, Amazing Visual, 다이얼라잇, 배티에스, IM 등 총 8팀이 참여한다. 이번 페어를 기념해 '광주 출전기'를 만든 고(故) 정세현(범능스님)의 특별 앨범도

LP로 제작됐다. 1987년 노래패 '친구'를 창단, 노래운동을 펼치다 불교에 귀의한 범능스님은 다양한 음악을 만들어왔다. 특별기념음반 '정세현(梵能)'에는 '오월의 꽃(1집)', '먼 산(2집)', '삼경의 피는 꽃(3집)', '무소의 뿔(4집)' 등 네 장의 음반에서 뽑은 '광주출전기' '섬진강', '꽃이꽃아', '먼산', '꽃등 들어 남오시면' 등 11곡이 실렸다. 선곡 자문위원으로는 가수 박문옥 씨와 '임을 위한 행진곡' 작곡가 김중희 씨 등이 참여했다. 그밖에 '카세트 한정판' 5장도 선보인다. 김나무의 신작 '사랑은 높은 곳에서 흐르지', 볼빨간의 데뷔작 '지루바리믹스쇼', 김흥국의 레게 파티를 리뉴얼한 '레게의 신', 심어송라이터 김복인의 2집 '한 다발의 시선'과 이아립의 솔로 데뷔 앨범 '반도의 끝'으로 모두 절판 되었거나 구하기 쉽지 않은 희귀한 작품들이다. 무료 관람. peakmusic.co.kr. 문의 062-654-362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노래 열풍에 빠진 대한민국

2016 광주비엔날레를 만나다

광주일보 문화예술 전문 매거진

에냥 9월호



노래방은 우리나라 사람이면 한번쯤 가보는 친숙한 공간이다. 25년 전 부산에 노래방이 처음 생긴 이래, 노래방은 때려야 뗄 수 없는 문화공간으로 자리잡았다. 무엇보다 놀이문화와 회식문화가 그 이전과는 판이하게 달라졌다. 그뿐 아니라 지상파와 케이블 TV 등에서는 노래와 관련된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이 봇물을 이룬다.

예향 9월호는 '오늘도 우리는 열창한다'라는 주제로 노래와 관련된 다양한 양상을 조명했다. 노래 열풍의 원인과 대중문화와의 연관성, 노래교실을 찾는 사람들 등 노래에 빠진 대한민국의 다양한 모습을 들여다봤다.

기획 '사람이 브랜드'에서는 커피와 고독의 시인 다형 김현승을 조명했다. 김현승은 평양에서 태어났지만 목사인 부친을 따라 광주 양림동에 정착했다. 양림동 언덕은 소년 김현승이 무등산을 바라보며 시심을 키운 곳으로 다형의 문학적 흔적이 남아 있다. 현대 문학사에 빛나는, 남도가 배출한 김현승의 시 세계와 문학 정신 등을 다각도로 짚어봤다.

또 다른 기획에서는 2일 개막하는 '2016년광주비엔날레'를 소개했다. '제8기우대'를 주제로 37개국 101작가

와 팀이 참여하는 이번 비엔날레는 신작 비율이 역대 행사 중 가장 높다. 주요 작품들과 화제 작가들의 이야기를 통해 올해 비엔날레의 특징과 가능성을 가늠했다.

'예향 초대석'에서는 나이를 잊은 채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첼리스트 정명화(72) 씨를 만났다. 그녀는 올해로 13회째를 맞은 평창 대관령 국제음악제 공동 예술감독을 맡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데 이어 러시아 마린스키 극동페스티벌 축하 상호협약을 맺었다. 첼로와 인연을 맺은 지 60여 년이 지난 대가의 삶과 예술에 대해 들었다.

'남도의 장인들'에서는 남도의례음식장 민경숙 씨를 만나 추석 송편 이야기를 들었다. 다가올 이번 추석에는 그녀가 제안하는 맛있게 송편 만드는 법을 토대로 온 가족이 즐거운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소문난 예술교육 현장을 찾아서'에서는 현대미술관 덕수궁관에서 진행되는 '근현대미술사아카데미'를 소개하고 '남도 美味樂'에서는 증기기관차와 레일 바이크, 장미축제, 섬진강 래프팅, 참깨탕으로 유명한 곡성을 찾아 역사와 문화, 맛의 세계를 들려준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9월 첫 주말 가을 여는 음악축제

사직공원 일원 **광주사운드파크페스티벌**
광주여대 야외무대 **난장사운드페스티벌**

9월 첫 주말(3~4일) 광주에서는 두 개의 굵직한 음악 축제가 열린다. '2016 광주사운드파크페스티벌'은 9월 3~4일 사직공원 일원에서 열린다.

팝, 포크, 모던 락을 만날 수 있는 3일은 '라이브 황제', '공연의 신'으로 불리는 이승환과 아메리카노, '봄이 좋냐?' 등으로 인기 높은 듀오 '10cm', 샘김, 가을방학, 흥콩 인디밴드 'GDJYB' 등이 출연한다.

일렉트로닉, 힙합, EDM 음악이 공연되는 4일에는 '센 언니' 제사를 비롯해 팔로알토, 힙합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허클베리피', 최근 '소미더머니5'에 출연했던 G2, 2016 한국대중음악상 최우수 모던록상을 수상한 4인조 밴드 '락스' 등이 출연한다.

1일권은 3만 3000원, 2일권은 5만 5000원이다. 할인 혜택. ticket.interpark.com. 문의 062-654-3622.

제1회 난장사운드페스티벌은 9월3~4일 광주여대 야외무대에서 열린다. 다양한 장르 뮤지션들의 100% 라이브 공연으로 사랑을 받아온 광주MBC '문화콘서트 난장'이 방송 10주년을 맞아 기획한 음악 축제다. 20여팀이 참여하는 출연진 중 눈에 띄는 이는 '우리동



이승환



국카스텐

네 음악대장' 하현우의 국카스텐이다. 2년간 '난장'의 MC를 맡았던 하현우는 '난장지존'으로 불리며 많은 사랑을 받았다.

또 '별빛이 내린다' 등 중독성 강한 멜로디와 호소력 짙은 가사로 사랑받고 있는 '안녕바다', 흥대 여신으로 불리는 '뷰렛', '몽니', '질은' 등이 출연한다. 문의 062-360-2125.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명품 박물관 탄생!!
세계 70여개국에서 수집한 조각·장식 6,000여점 전시

세계 조각·장식 박물관
World Sculpture·Ornament Museum

☎ (062) 222-0072, 226-5800 일요일 휴관
(구. 카톨릭센터 뒤 금남연선 1층) *400여점 전시

모임이 있으신가요? 귀한 손님 대접하시는지요?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에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건강한 한정식으로 즐거운 만남이 완성되는 곳!
●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에 위한 대소 연회장
● 300가지 와인을 즐길 수 있는 카페 보네르
● 맞춤형 출장도시락

연회장 세미나 가족모임 상견례

☎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게임동 홈플러스 건너편 예약문의 (062)525-2111 www.geumsoojang.com 각종모임은 전통있는 아리랑하우스

백양사 입구 **백양관광호텔**
Beautiful Baeg Yang Hotel

정원과 테라스가 아름다운 호텔
실내 결혼식장과 야외 결혼식장을 갖춘 호텔
출장 뷔페 전문 호텔 = 호텔의식사업부
교회 행사 전문 호텔

하반기 직원모집
프린트 22~55세, 주방반모 (출퇴근 및 숙식가능)

자연과 인간 그리고 예술의 만남
◆ 대형 웨딩홀 준공
◆ 400석 대면회장 신축
- 대규모 기업행사(세미나/워크숍/기업연수)
- 결혼식/피로연/교회연
- 각종 모임(가족모임/동창모임/각종단체모임 등)

전객실을 편백으로 리모델링한 호텔

Beautiful Baeg Yang Hotel
http://www.baegyanghotel.co.kr/ 백양관광호텔 | 예약 및 문의 | 061-392-2114